

Special Issue Focus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건설 이슈와 대응

2020. 4

코로나19 해외건설 대응 TF

■ 세계 경제와 해외건설시장 동향	4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건설 이슈 진단	18
■ 해외 국가와 기업의 대응 사례 분석	28
■ 해외건설산업의 주체별 대응 과제	35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공급과 수요의 동시 위축이 발생하면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세계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국가별로 이뤄지고 있는 입국 제한 및 이동 금지 등의 조치로 건설을 포함한 대부분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 해외건설도 이러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음. 세계 각국에 진출해 건설사업을 수행 중인 국내의 다수 건설기업은 입국 제한과 이동 중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현장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해외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해외사례 분석을 종합해 정부와 기업의 대응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88%는 코로나19 확산이 수행 중인 해외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함. 또한, 코로나19 확산은 착공 예정인 사업과 향후 신규 사업 수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응답함.
 - 입국 제한 등 국가 봉쇄로 인한 인력 및 자재 등의 조달 체계 혼란, 사업 현장의 축소 운영, 발주국의 공사 중지 및 축소 운영 등의 애로사항이 있으며, 이로 인해 해외진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계약 조건상에 불가항력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이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발주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공기 연장 및 이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 계약변경 협의시 발주처와의 분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설문조사 응답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외사업 영향 완화를 위해 ‘사업 수행 필수 인력의 입국 제한조치 완화 및 해제 노력의 지속(35%)’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 외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 분쟁 발생시 법률 자문 지원(27%), 해외사업 수행 기업의 코로나19 대응 사례 공유(18%), 수주 전략의 목적으로 기업과 국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인도적 차원의 방역용품 제공(15%), 국내 업체의 입찰 배제 등 발주처 불공정 행위 해소(5%) 등을 언급함.
- 해외건설시장 진출 기업을 위한 정부의 대응 과제로는 (1) 산업별 팬데믹 대응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시행, (2) 입국 제한 등의 조치 완화를 위한 외교적 대응의 지속 및 강화, (3) 클레임 관련 법률 자문 등 지원, (4) 해외사업 수행 기업의 코로나19 대응 사례 공유, (5)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한 시장 진출 전략의 수립 및 시행이 포함됨.
-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사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의 대응 과제로는 (1) 팬데믹 대응 조직의 구축과 운영, (2) 전염병 등을 포함하는 해외건설 리스크 관리 체계의 고도화, (3)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한 기업의 회복 탄력성 확보가 포함됨.

I 세계 경제와 해외건설시장 동향

1. 세계 경제 동향

(1) 세계 경제 및 세계 건설시장 전망 조정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의 위기가 일시적인 침체가 아니라 경험해보지 못한 불황(recession)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음.

- OECD는 지난해 말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한 바 있으나, 3월 2일 코로나19 영향을 반영하여 2.4%로 하향 조정함.
- 하지만 OECD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고 장기화될 경우 세계 경제성장률은 1.5%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발표함. OECD의 전망은 WHO의 팬데믹 선언 전에 발표된 것으로 시시각각 악화되는 상황에 따라 세계 경제성장률의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됨.
-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14일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3.0%로 하락할 것을 전망하였음. 이 중 신흥 경제국은 -1%로 하락하나, 선진 경제국은 경제성장률이 -6.1%까지 떨어져 하락 폭이 클 것으로 전망함. 이후 2021년에는 경제성장률이 5.8%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표 1〉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발표기관	OECD	무디스 (G20개국)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IMF	S&P	피치
전망치	2.4%	-0.5%	-2.8%	-3.0%	-2.4%	-3.9%
기존 전망치	2.9%	2.6%	1.1%	3.3%	0.4%	-1.9%
발표일	3.2	3.25	4.8	4.14	4.16	4.22

자료 : 각 기관 홈페이지.

■ 3월 초 맥킨지¹⁾는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경제 전망을 빠른 회복(V자형), 제한적 경기 둔화(U자형), 세계 경기 침체(L자형)의 3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한 바 있음. 하지만 3월 중 사태가 급격히 악화하며 가장 긍정적이었던 V자형 회복 시나리오는 현실점에서 기대할 수 없음.

- 4월 말 현재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코로나19의 확산이 4월에 정점을 찍고, 각

1) McKinsey(2020.3.9), 'COVID-19 : Briefing note'.

국 정부의 경기 회복 노력과 함께 세계 경제가 U자형의 회복을 보이는 경우임.

- 다만, 소비심리는 하반기까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항공·여행·운수 산업 등은 장기적인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남음.

■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현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이 2~3년에 걸친 L자형의 침체를 겪는 경우임.

- 맥킨지는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이 5월이 되어서야 정점을 찍고, 계절과 관련 없이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할 경우 세계 경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함. 이럴 경우 각국 정부의 재정 및 통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동안 소비 감소, 기업 파산, 대량 실업 등이 나타날 수 있음.

■ 결국, 세계 경제의 회복 형태는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 여부, 그리고 각국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과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U자형과 L자형 시나리오의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확산이 4월을 정점으로 하반기에는 완화될 경우 U자형 회복 시나리오의 전개가 가능하지만, 확산이 하반기까지 장기화할 경우에는 각국의 경기 부양책 실시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음.

〈표 2〉 코로나19 추이에 따른 세계 경제 회복 시나리오

	U자형	L자형
코로나19 추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확산은 4월 정점 • 혹은 상반기 중 절정에 달하고 하반기에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확산이 하반기까지 지속
세계 경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상반기가 최저 경제성장률 • 국가 간 이동 제한 완화 • 하반기 세계 경제 서서히 회복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 무역, 금융 전 영역 활동 침체 • 세계 공급사슬 붕괴 •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진행

■ 코로나19의 확산 이전 발표된 IHS Markit의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건설 시장의 규모는 전년 대비 3.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시장, 아시아 시장, 중동 시장의 성장률이 각각 10.5%, 5.6%, 4.3%로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었음.

〈표 3〉 세계 및 지역별 건설시장 2020년 전망 (코로나19 확산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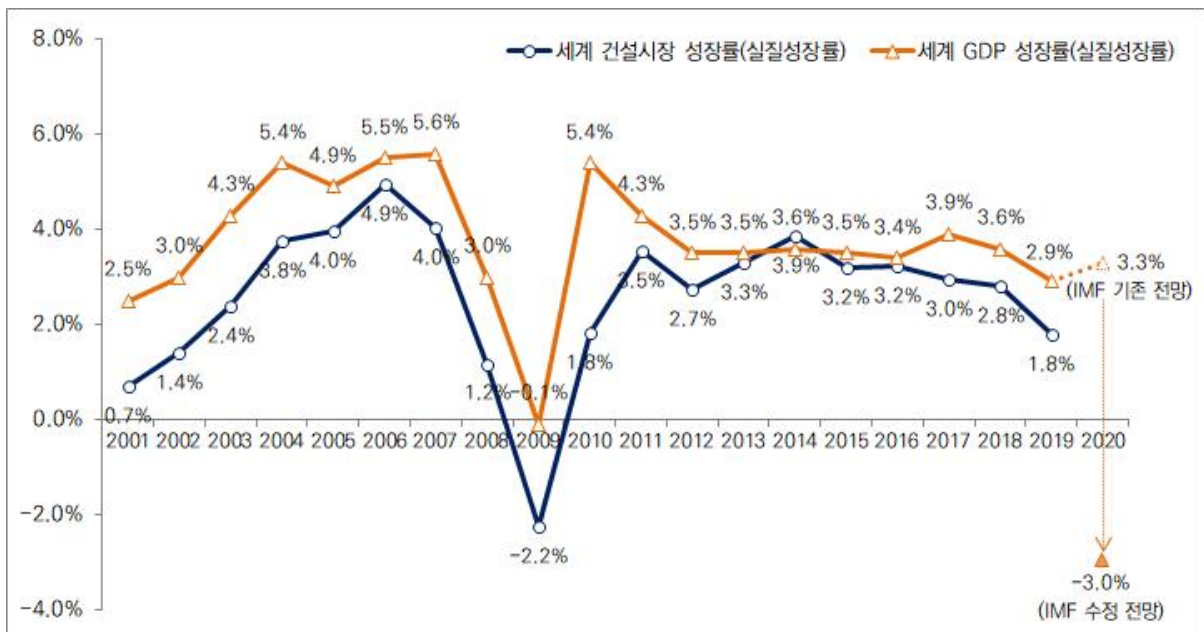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구분	세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북미/ 태평양	중남미
규모	116,309	58,229	5,654	1,208	26,839	18,851	5,527
점유율	100%	50%	4.9%	1.0%	23.1%	16.2%	4.8%
전년 대비 성장률	3.4%	5.6%	4.3%	10.5%	0.1%	1.5%	1.2%

자료 : IHS Markit(2019.12.30) ;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2020.2.28), '2020년 세계 건설시장 전망' 자료에서 재인용.

- 지난 20년간 세계 건설시장의 성장률은 세계 GDP 성장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여 왔음 (〈그림 1〉 참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세계 GDP 성장률과 건설시장 성장률이 동일 하락 폭을 보였음을 감안할 때, 2020년 세계 건설시장의 규모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됨.

〈그림 1〉 세계 건설시장 성장률 추이



자료 : IHS Markit(2019.12.30) 및 IMF(2020.4).

(2)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

올해 초까지는 수요 증가와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전망이 우세한 양상을 보였음.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제유가는 급락세로 전환됨.

- 국제유가(브렌트유)는 올해 초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의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일시적으로 배럴당 70달러에 근접하기도 했었음.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심각성이 뚜렷해지면서 국제유가는 2월 10일에 54달러를 기록해 2주 남짓한 기간 동안 약 20% 급락하며 하락세로 전환됨.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선언되고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제유가(브렌트유)는 3월 30일 기준으로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음.

- 3월 30일 국제유가는 배럴당 22.58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2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심지어 텍사스 중질유(WTI)의 가격은 배럴당 20달러를 밑돌아 1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음.
- 국제유가 급락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의 유가 전쟁에서 찾을 수 있음.

〈그림 2〉 국제유가(브렌트유) 동향

(단위 :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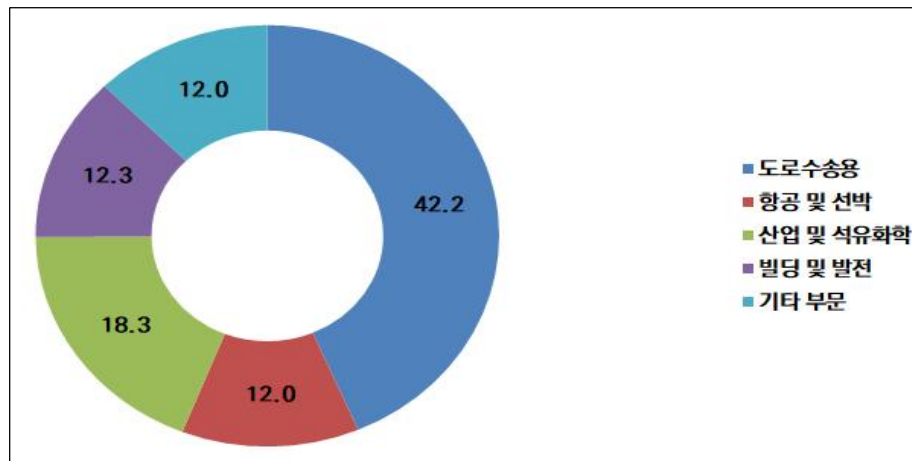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최근 국제유가 급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의 일시적 정지가 석유 수요를 급격히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임.

- IEA 분석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세계 석유 수요의 감소 규모는 일일 약 2.5백만 배럴이며, 이 중
에 중국의 수요 감소 규모가 약 1.8백만 배럴을 차지함. 중국은 2018년 평균 일일 12.5백만 배럴
의 석유를 소비했었음.
- 골드만 삭스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국가 봉쇄(lock-down) 등의 조치로
인해 석유 소비가 일일 최대 2,60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이는 확산 전 평균 세계 수요의
약 25% 수준으로 수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국제유가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
용하고 있음.
- <그림 3>에서 보듯이 2018년 기준 세계 석유 수요 중 도로 수송용과 항공 및 선박 부문의 수요 규
모의 비중은 일일 전체 수요량 96.8백만 배럴의 56%에 해당하는 54.2백만 배럴임.

〈그림 3〉 2018년 부문별 세계 석유 수요

(단위 : 백만 배럴/일)



자료 :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 이와 같은 세계 석유 수요의 감소 외에 국제유가 급락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은 사우디 아라비아와 러시아 간에 벌어지고 있는 유가 전쟁에서 찾을 수 있음.

- 지난 3월 8일 두 국가의 추가 감산을 위한 합의가 결렬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히려 생산량을 증
산함과 동시에 아시아, 유럽 등 수입국에 배럴당 6~8달러씩 할인된 수출 가격을 제시하는 등 공급
충격을 심화시키고 있음.
- 2018년 이후 이란, 리비아,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 손실 규모가 일일 3.5백만 배럴임에도 불구
하고 원유 공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의 국제유가의 주도권 싸움은 국제유
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Fitch Ratings의 분석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2020년 재정 균형 유가는 91달러

수준으로 현재와 같은 극단적인 저유가는 외화 보유액 감소와 Vision 2030 추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두 국가 간의 유가 전쟁이 미국의 셰일업체와 캐나다 및 영국의 석유산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국가들의 감산 합의 압력도 증가하고 있음.
- 50만 배럴을 추가로 증산하겠다고 밝히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비교해 재정 및 정치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두 국가 모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감산 합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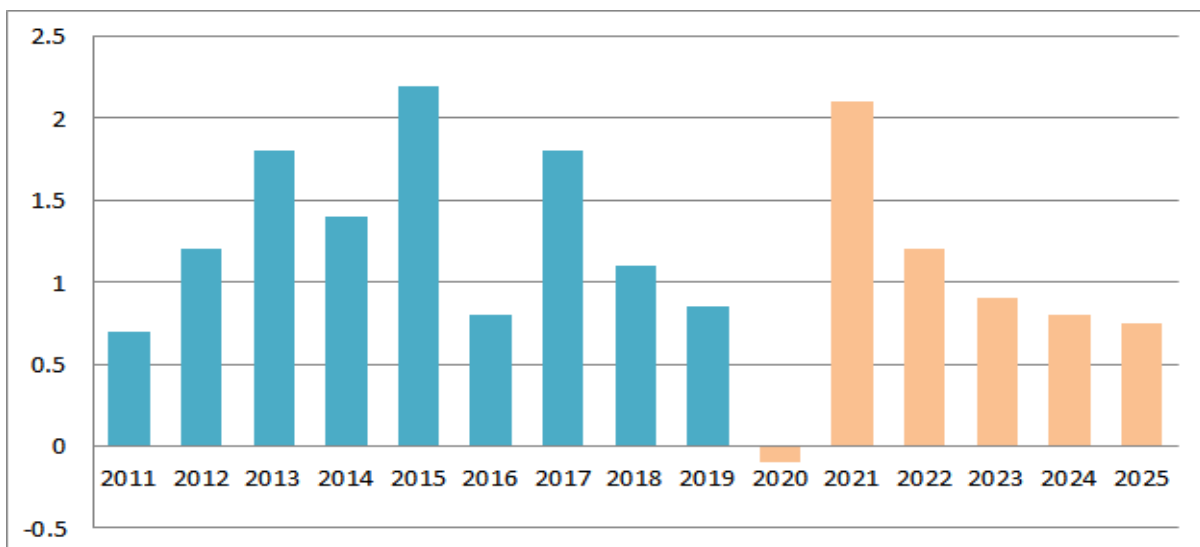
(3) 국제유가 전망과 영향 요인

■ 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는 2019~2025년 사이 세계 석유 수요는 연평균 95만 배럴/일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현재의 석유 수요 감소는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 수요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와 같은 추세에서는 단기적으로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 IEA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석유 수요는 2.1백만 배럴/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요의 증가가 국제유가의 회복이라는 결과로 반드시 귀결된다는 의미는 아님. 국제유가의 상승을 위한 필수 조건은 경제활동의 재개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의 유가 전쟁 종식임.

〈그림 4〉 2011~2025년 세계 석유 수요 증가량 전망

(단위 : 백만 배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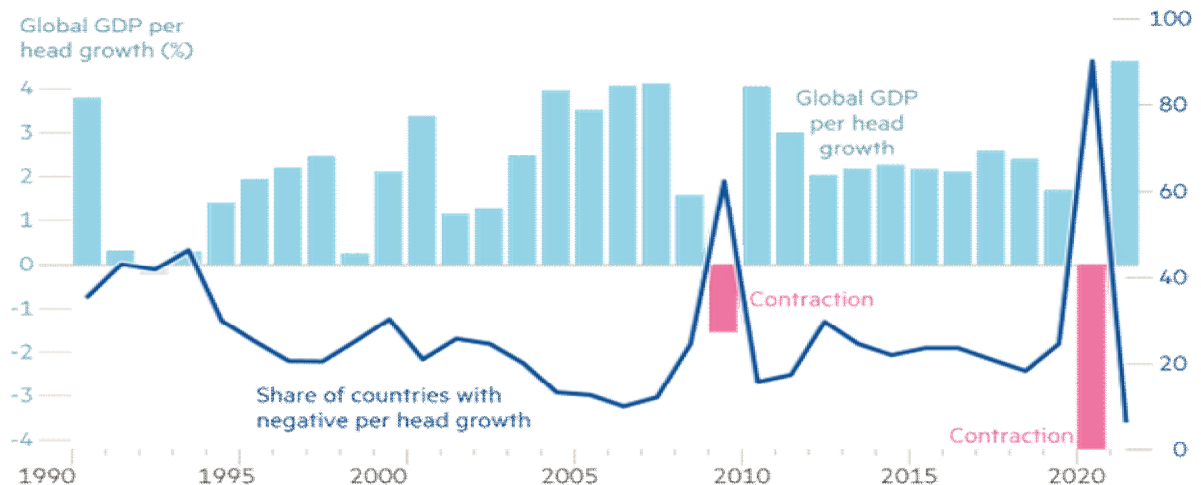
자료 : Fuel Report Oil 2020, International Energy Agency.

- ❖ 골드만 삭스는 국가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여행 금지 등이 세계 GDP의 92%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함. 때문에, 급락 전 수준의 국제유가 상승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코로나19 확산 진정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임.
- ❖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Fitch Ratings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국가 및 지역별로는 미국과 유로존이 각각 -3.3%와 -4.2%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함.
 - 피치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은 2021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함.
 - V자형 반등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늘어나면서 U자형 또는 스위시형과 같은 경기 회복 지연과 실질적인 구조적 피해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음. EY의 조사에 따르면 54%의 기업이 U자형 경제 회복을 예상함.
 - 결국, 실물 경제의 침체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전방위적 재정정책과 바이러스 종식의 노력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긍정적 시나리오의 실현은 불가능함.

〈그림 5〉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Growth in global GDP per head and recessions

Share of countries with negative per head growth (%)



출처 : Financial Times.

- ❖ 향후 국제유가 상승을 위한 두 번째 요인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의 유가 전쟁 조기 종식임. 코로나19 확산 전에도 세계 석유시장은 공급 과잉 상태로 OPEC+의 인

위적 감산이 시행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가 전쟁 종식은 필수 요인임.

■ 4월 9일 OPEC+는 유가의 추가 하락을 방어하고 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5월부터 두 달간 하루 970만 배럴의 역대 최고 규모의 감산에 합의함.

-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각각 250만 배럴, 이라크가 100만 배럴, 나이지리아가 42만 배럴 등을 감산하며, 멕시코를 포함하는 기타 산유국이 약 258만 배럴을 감산할 계획임.
- 공급량 증가는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석유시장에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로 인해 일일 2,000만 배럴의 잉여량이 발생하면 저장시설 부족 등과 같은 인프라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음.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증산 계획 철회와 추가 감산 합의는 경기 반등의 효과와 함께 국제유가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현재 예상되는 2020년 평균 국제유가는 38.7달러로 지난 2월 예측 가격인 60.6달러보다 36%나 하락했음. 수요 회복과 유가 전쟁 종식 및 감산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배럴당 30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골드만 삭스에 따르면 최대 90만 배럴/일의 수요 감소에 따른 정유량 감소 및 유전개발 축소 등 석유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향후 충분한 석유 공급이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공급이 어려운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어 유가 상승 폭을 키울 수도 있음.

2. 해외건설시장 동향

(1) 주요 해외건설시장의 코로나19 동향

■ 각국의 건설시장 상황은 코로나19에 대한 보건의료상의 대처 현황과 향후 국가 경제의 대처 여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일차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진정시키고 이동 제한 등의 조치가 빠르게 완화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긴급 예산 투입,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되어야 함.

■ 코로나19에 대한 국가별 리스크는 확진자 수로는 정확한 비교가 어려우며, 100만 명당 발생률과 사망률, 확진자 추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코로나 확진자의 발생률이 높으나 사망률이 낮다면, 국가가 효과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향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큼.

- 한편, 코로나 발생이 안정단계에 들어서더라도 싱가포르 사례와 같이 방역 조치 완화 시에 2차 확산이 시작될 수 있음.

〈표 4〉 우리나라 주요 진출 국가의 코로나19 확산 및 대응 현황

국가	코로나 확산 현황(4.27)				코로나 리스크 수준	경제지표		건설시장		대응 현황
	확진자 (명)	사망률 (%)	100만 명 당 발생자	100만 명 당 검사수		GDP 규모 (백만달러)	국가신 용등급 (S&P)	점유율 (%)	연간 성장률 (%)	
인도네시아	9,096	8.4	33	275	+++	3,032,090 (8위)	BBB	3.34	9.4	*인프라 배정 예산의 25%를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전환 *인프라 관련 재원 대부분이 외국인 투자 *60억불 규모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프로젝트 재개(4.2)
말레이시아	5,820	1.7	180	4,470	++	815,645 (26위)	A-	0.46	6.3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578억불 규모의 경기 부양책 발표(3.27) *국책사업인 110억불 규모의 동부해안철도사업(ECRL)과 20억불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는 일정 변동없이 4월 중 추진 계획 발표
베트남	270	0	3	2,188	+	552,297 (33위)	BB	0.28	8.5	*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부양책 준비 중
싱가포르	14,423	0.1	2,468	20,815	++	471,631 (38위)	AAA	0.26	0.2	*1분기 건설부문은 전년 대비 -4.3% 위축 예상 *지원조치로 484억불의 경정예산 확보
사우디아라비아	18,811	0.8	540	5,745	++	1,756,793 (15위)	A-	0.81	3.4	*경제/보건 분야에 320억불 이상의 자금 지원 발표(3.30) *Saudi Aramco 등 각종 입찰 제출 마감일 연장
아랍에미리트	10,839	0.8	1,096	106,904	++	643,166 (30위)	AA	0.76	7.4	*중앙은행, 연방정부, 아부다비 및 두바이 정부는 총 AED 1,265억(340억불 상당)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 *ADNOC 등 각종 입찰 제출 마감 연기
카타르	11,244	0.1	3,903	29,749	++	321,418 (47위)	AA-	0.41	4.4	*민간분야 206억불 지원 등의 경기부양책 발표(3.15)
쿠웨이트	3,288	0.7	770	-	++	277,554 (52위)	AA-	0.10	-1.8	*쿠웨이트의 GDP는 GCC 및 아랍 국가 중 가장 적은 -1.1% 위축 전망(IMF)
우리나라	10,738	2.3	209	11,735	+	1,832,073 (14위)	AA	1.88	2.9	*1,000억불 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3.26)

주: 코로나 리스크 수준은 +(바이러스 확산이 감소하고 안정화된 상태), ++(바이러스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나 국가의 통제가 가능한 상태),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의료시스템 마비가 우려되는 상태)로 표기.

자료: 해외건설협회 시장동향 및 외교부 국제경제동향, 코로나바이러스 현황 데이터(CoronaBoard, Worldometers) 등.

■ 국가 지표 중 GDP 대비 부채비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경제적 대응 여력이 높으며, 향후 인프라 건설 등의 사업을 통해 경기 부양을 진행할 가능성이 큼.

-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는 국가신용등급이 높고 건설시장의 연간 성장률이 높은 국가이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역량도 높아 향후 유망한 시장이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주요 시장인 아시아 및 중동 지역의 코로나 현황, 경제 지표, 대응 동향은 위의 <표 4>와 같이 조사됨.

- 중동 지역은 코로나19 발생 수준이 높지만 사망률이 낮고 적극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아시아 지역과 비교하여 국가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아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아시아지역은 건설시장의 규모가 크고 연간 성장률이 높아 코로나19 발생 전 가장 유망한 지역으로 전망되었음. 하지만, 인프라 건설의 재원이 외국인 투자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세계 경기 침체, 특히 선진국의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설시장의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음.
- 한편, 4월 중순부터 100만 명당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싱가포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 이들 국가의 건설현장에서는 보건관리가 더욱 중요해짐.

(2)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동향

■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공사 수주는 2014년 660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감소세를 보여 지난 2019년에는 223억 달러, 669건의 수주를 기록하였음.

- 수주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주 건수는 소폭 감소하거나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며, 같은 기간 동안 중소 건설기업의 수주도 다소 감소하여 2019년에는 17억 달러를 기록하였음(<그림 6> 참조).

■ 해외 건설공사 수주 규모가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주 기업은 400개사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해외 건설공사 수주 기업은 2014년 461개사에서 2019년 386개사로 약 16% 감소하였는데, 동 기간 해외건설업 신고 기업은 1,014개사에서 617개사로 약 39% 감소하였음(<그림 7> 참조).
- 해외건설업 신고 기업의 경우 2019년 기준 전문건설기업이 149개사로 가장 많으며, 종합건설기업 69개사, 건설엔지니어링기업 43개사, 그리고 전기, 정보통신, 환경 등 기타가 178개사임.

■ 최근 해외건설 수주의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 이후 중동 지역의 비중은 점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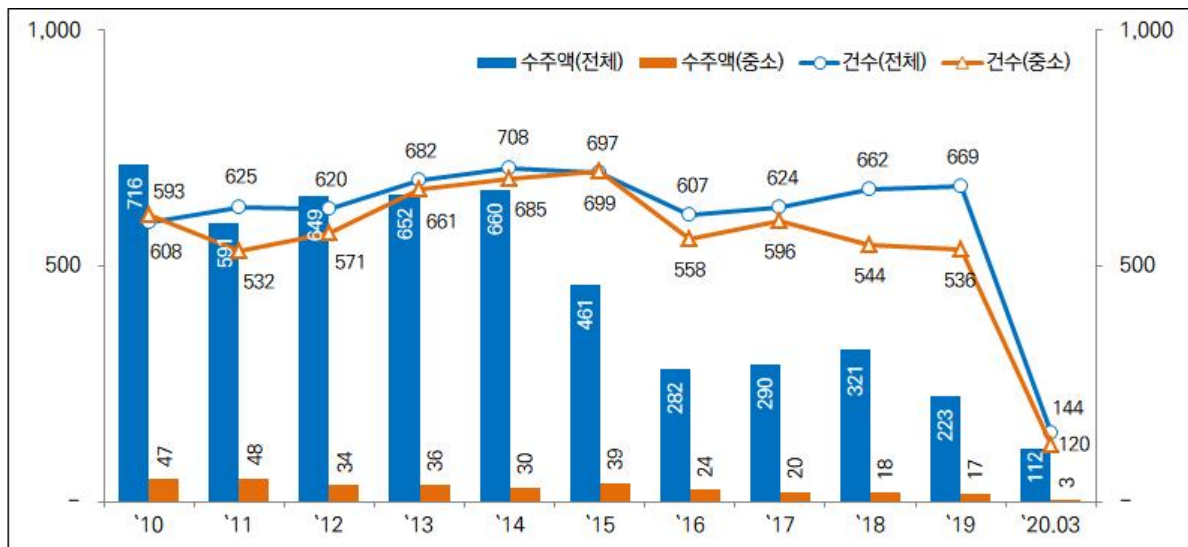
감소하는 반면에, 아시아 지역의 비중은 증가하여 아시아 지역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7년 50%였던 중동의 비중은 2018년 29%, 2019년 21%까지 하락했으며, 동 기간 아시아의 비중은 43%, 50%, 56%로 증가하였음.

〈그림 6〉 최근 10년간 해외건설 수주 추이

(단위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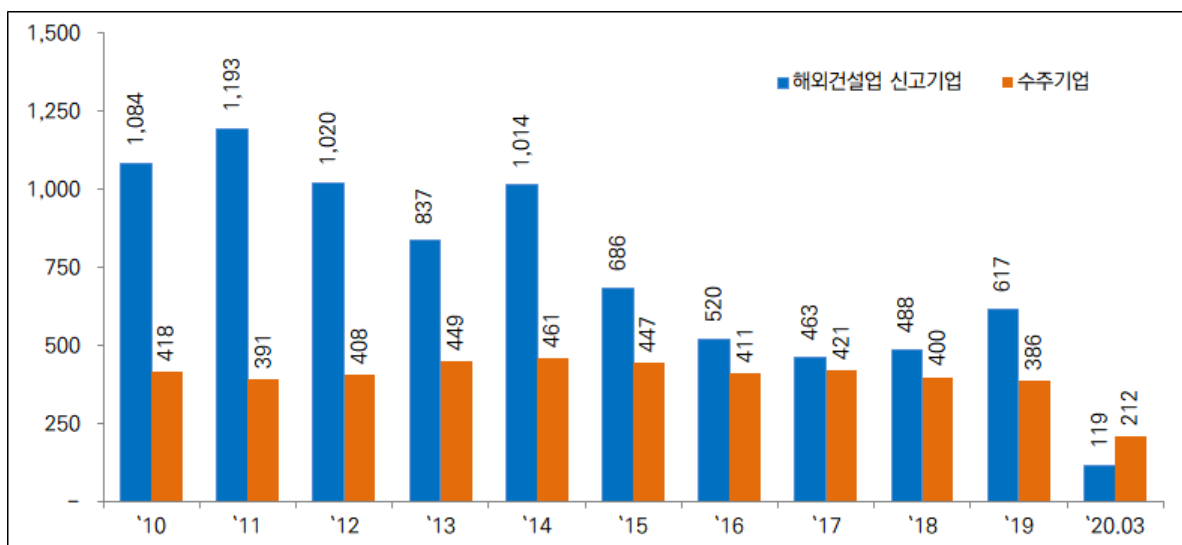
(단위 : 건수)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0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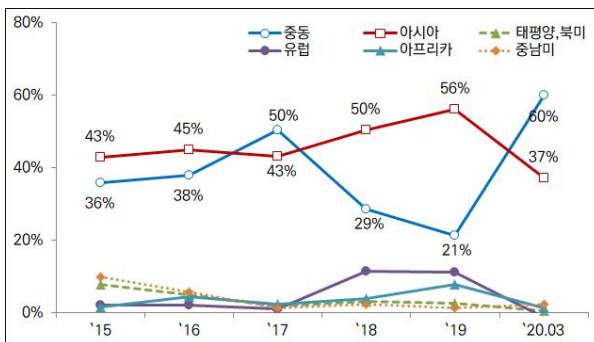
〈그림 7〉 해외건설업 신고기업 및 해외 공사 수주기업 수 추이

(단위 : 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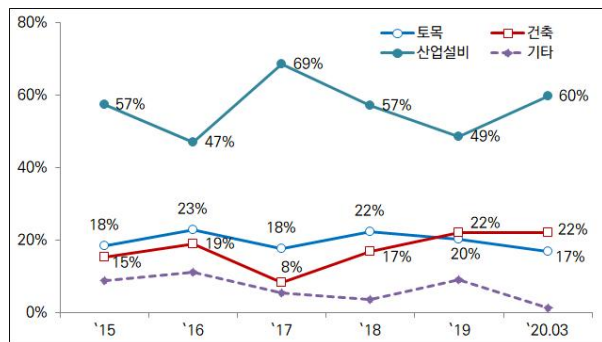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020.3).

〈그림 8〉 최근 5년간 지역별 해외 수주 비중 추이
(단위 : %)



〈그림 9〉 최근 5년간 공종별 해외 수주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020.3).

- 공종별로는 산업설비와 토목 부문이 각각 50%, 20% 내외의 높은 비중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건축 부문의 비중이 소폭 상승하는 양상을 보임.

- 산업설비 부문은 최근 5년간 해외 수주 공사의 47~69%, 토목 부문은 17~23%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8%까지 하락했던 건축 부문의 비중은 2018년 17%, 2019년 22%로 증가하였음.

- 최근 중동 지역 해외건설 주요국 수주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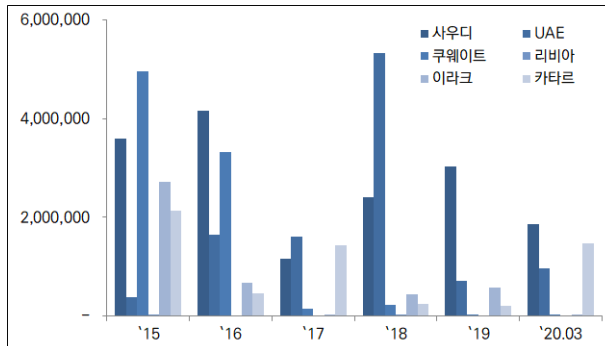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로부터 수주한 해외사업은 각각 143억 달러, 96억 달러에 달하며, 이어 쿠웨이트, 카타르, 이라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20년 들어서는 3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8억 5,000만 달러, 카타르에서 14억 6,000만 달러 규모의 공사가 수주되었음.
-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24일 'G20 특별화상정상회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 모하메드 왕세자가 기업인들의 교류를 위한 별도 지원을 협의하는 등 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²⁾

-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 베트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수주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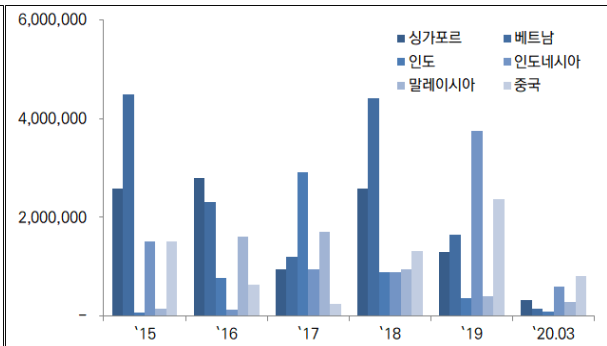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싱가포르와 베트남으로부터 수주한 공사의 규모는 각각 101억 달러, 140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해와 올해 들어 인도네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수주가 증가함.
- 우리 기업들의 수주 비중이 높은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음.

2) 홍성희, 「문대통령, 사우디 왕세자와 통화...“G20서 기업인 활동 보장 협의”」, KBS 뉴스, 2020.3.2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9236&ref=D>.

〈그림 10〉 중동 주요 국가의 해외공사 수주 추이
(단위 : 천 달러)



〈그림 11〉 아시아 주요 국가의 해외공사 수주 추이
(단위 :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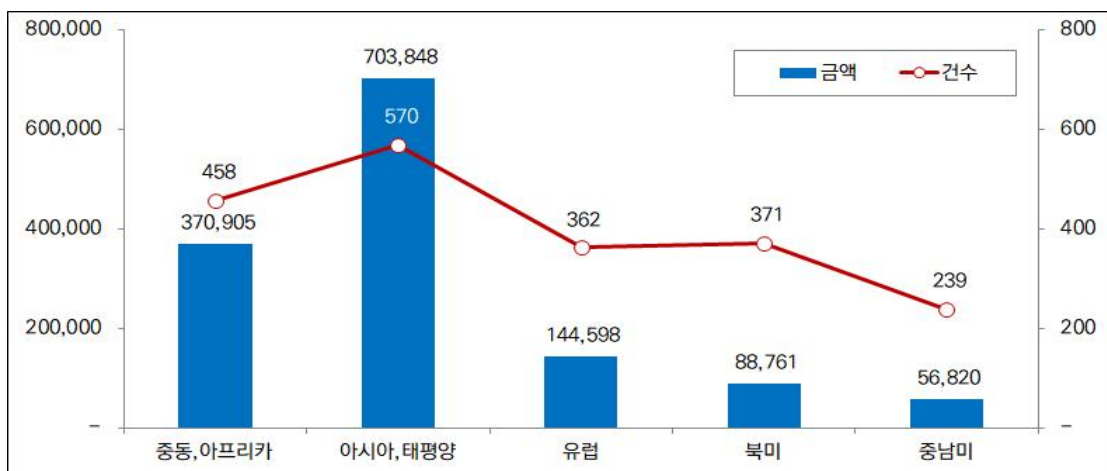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020.3).

(2) 신규 발주 예상 사업 현황

■ 2020년 3월 현재 발주 예정인 해외 건설공사는 약 2,000건, 1조 3,000억 달러 규모이며³⁾, 건수 기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28.5%, 중동·아프리카 지역이 22.9%를 차지함.

- 예상 사업비 기준 발주가 예상되는 지역은 아시아·태평양, 중동·아프리카, 유럽, 북미, 중남미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12〉 해외건설시장 지역별 발주 예정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단위 :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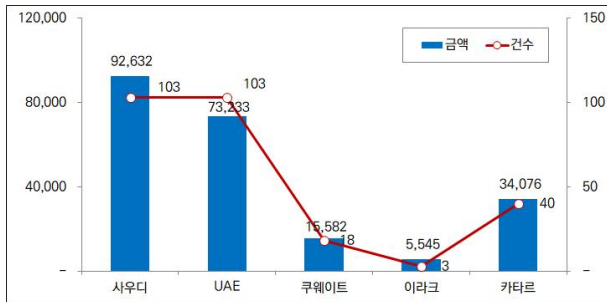
주 : 입찰 이전(Announced, Study, Planning, Pre-Design, Design, Pre-Tender)의 모든 사업을 포함한 규모임.

자료 : Construction Information Center (20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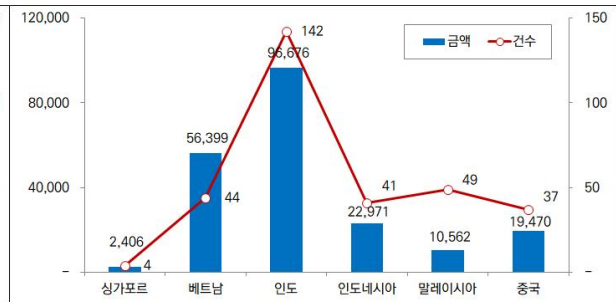
3) Construction Information Center의 입찰 이전(Announcement, Study, Planning, Pre-Design, Design, Pre-Tender)에 해당하는 사업.

- 우리 건설기업의 주요 진출 시장인 중동과 아시아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그리고 인도와 베트남에서 다수의 건설사업이 발주 예정되어 있음.

〈그림 13〉 중동 주요 국가의 발주 예정사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그림 14〉 아시아 주요 국가의 발주 예정사업 현황
(단위 : 건수)



주. 입찰 이전(Announced, Study, Planning, Pre-Design, Design, Pre-Tender)의 모든 사업을 포함한 규모임.
자료 : Construction Information Center (2020.03).

- 하지만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과 지속으로 각국의 신규 사업 추진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기존에 계획된 건설사업의 발주 및 우리 건설기업들의 신규 사업 수주에는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등 건설사업의 발주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가 인프라 배정 예산의 25%를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전환하는 등(〈표 4〉 참조) 경제·보건 분야 지출로 신규 건설사업 발주 계획의 변동 가능성이 높아짐.
-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각종 입찰 제출 마감을 연기하는 등(〈표 4〉 참조) 발주 일정을 조정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우리 건설기업의 수주 계획 및 전략에 끼치는 영향이 높은 실정임.

- 더불어, 극단적인 수준까지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국제유가의 방향성은 향후 중동 지역을 포함한 산유국의 발주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음. 해외건설시장에서 산업설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국제유가의 상승은 시장 회복을 위한 필수 조건임.

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건설 이슈 진단

-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리 건설기업의 해외 건설사업 수주 및 공사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해외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슈진단 결과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심층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내 건설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개별 공사 및 발주 국가의 여건과 상이할 수 있음.
- 다수의 해외사업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2020년 4월 현재 해외 건설사업에 참여 중인 대형 시공사 및 설계·엔지니어링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인터뷰는 기업의 해외사업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재 당면한 애로 사항과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 그리고 향후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6개 시공사와 4개 설계·엔지니어링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심층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해외건설사업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해외 건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는 해외 건설사업을 수행 중인 종합건설기업과 설계·CM·엔지니어링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으며, 총 25개사(시공사 10개사, 설계·CM·엔지니어링 분야 15개사)가 응답하였음.
 - 설문조사는 현재 해외에서 시공 중인 사업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착공 예정인 사업, 수주 영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음.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건설 영향 정도

- 인터뷰에 응한 기업은 해외 건설사업을 수행하면서 입국 금지 및 제한, 발주 국가의 공사중단 명령 등으로 진행 중 사업에 큰 차질을 겪고 있으며, 신규 사업의 발주 및 입찰 지연으로 향후 수주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남.
 -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A사는 정부의 작업중지 명령으로 현장이 중지되었다가 해제된 상황이나, 현지 인력수급 문제로 인해 현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B사의 경우, 공사 수행을 위한 자재수급 및 인력조달은 양호한 편이나 유럽 국가들의 현지 입국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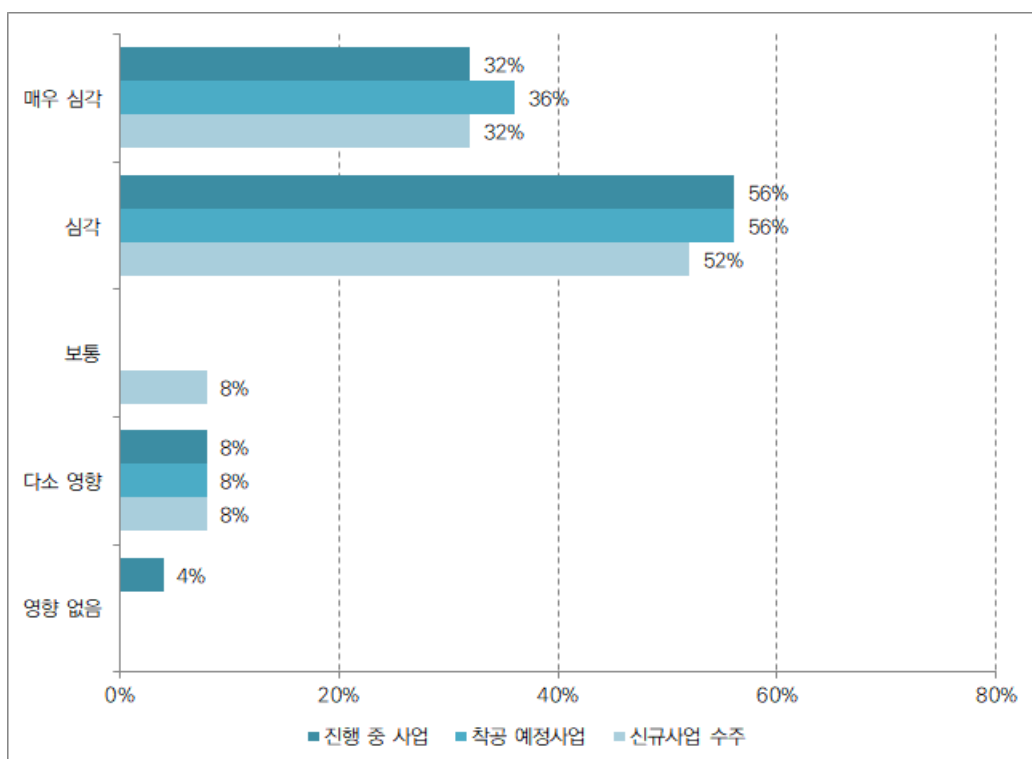
한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유럽 출신의 인력 입국이 제한되어 원활한 사업 진행이 불가한 상황임.

- 민간 건축설계 사업을 수행 중인 F사는 시공사에 비해 이동 제한 등에 따른 작업의 차질은 적은 편이나,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우리 기업인 대면 기피로 대관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 밖에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에서 해외 사업을 수행 중인 여러 기업이 지역 봉쇄 및 입국 금지 등으로 인해 사업 수행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설문조사 응답 기업 대부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진행 중인 해외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착공 예정, 신규 사업 수주 등 모든 경우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향을 ‘심각’ 또는 ‘매우 심각’으로 응답한 비율이 진행 중 사업의 88%, 착공 예정 사업은 92%, 신규 사업 수주는 84%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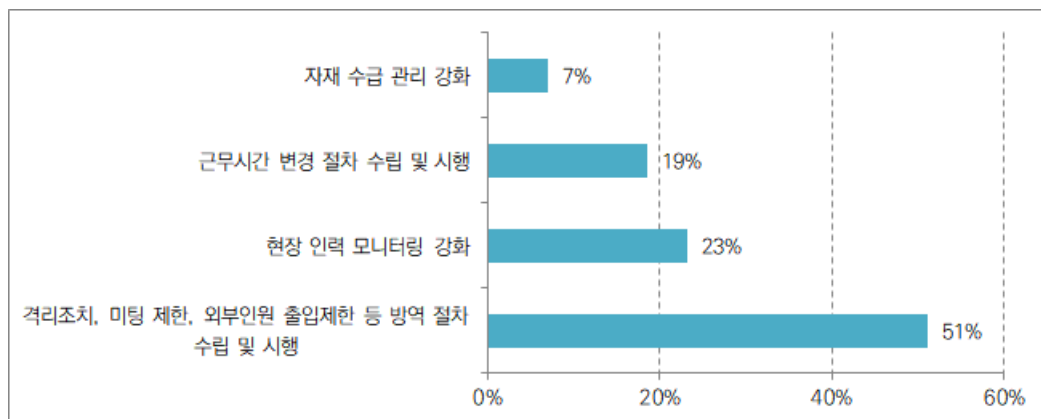
〈그림 1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공사 수행 영향



■ 공사가 진행 중인 해외 현장에서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는 격리, 미팅 제한 등 방역 절차의 수립 및 시행(51%), 현장 인력의 모니터링 강화(23%)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이어 근무시간 변경 절차 수립 및 시행 19%, 자재수급 관리 강화 7%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시공사는 자재수급 관리 강화 비중이 설계·CM·엔지니어링 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그림 16〉 참조).

〈그림 16〉 코로나19 영향 최소화를 위한 기업의 대응 방안



주 : 본 항목은 복수 응답 조사 결과임.

2. 진행 중 해외 건설사업의 이슈 진단

(1) 발주 국가의 입국 제한조치로 인한 아국 인력 파견 문제

- 해외 건설사업의 특성상 국내 인력의 입출국이 잦을 수밖에 없으나, 현재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다수의 국가가 봉쇄 조치를 취함에 따라 현지 사업에 필요한 국내 인력 투입이 마비된 상황임.

-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 국가·지역은 150개로 국내 건설기업들이 주로 진출해 있는 중동과 아시아 국가·지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음.⁴⁾
- 입국을 제한한 국가에는 국내 건설기업들이 사업을 진행 중인 사우디, 이라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수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음.

- 다수의 국내 기업이 중동·동남아 지역 현장에서 휴가 등으로 국내 입국한 아국 인력이 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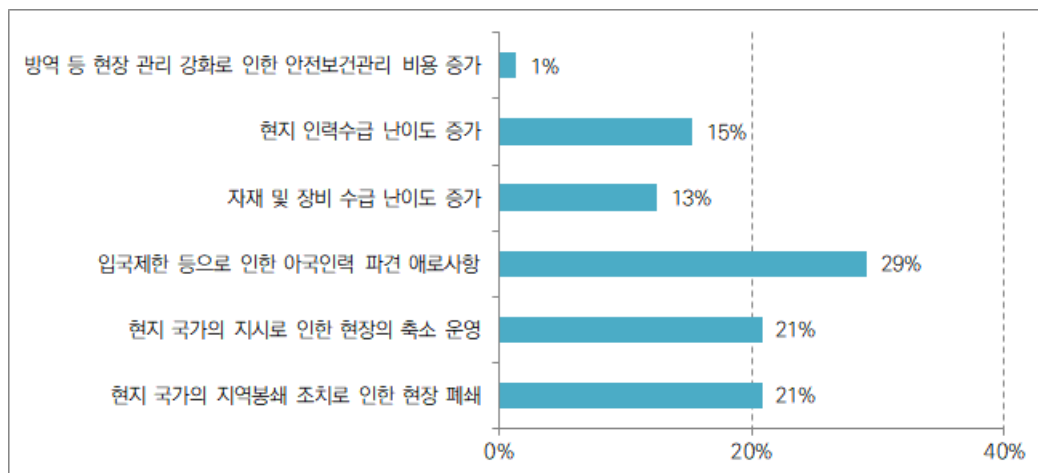
- 인터뷰에 응한 모든 기업이 현지 국가의 아국인 입국 제한조치로 인해 본사의 추가 지원 인력 없이 현지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현장 사업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4) 외교부(2020.4.15),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 C사는 아국 인력의 현지 파견 불가 문제뿐만 아니라, 현지 발주처 및 인허가기관의 한국인 대면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 대관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D사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최근 비자 발급 절차를 강화하여 자국민에게 고용된 외국인에게만 비자를 발급하고 있어, 국내 건설기업에 소속된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은 불가한 상황임.

■ 설문 결과에서도 현지 국가의 입국 제한으로 인한 아국 인력의 파견 문제가 29%로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으로 조사됨.

〈그림 17〉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외사업 수행상의 애로사항



주 : 본 항목은 복수 응답 조사 결과임.

(2)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사업 중단과 현장 운영 축소

■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의 여러 국가가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 업무정지(shut down)를 명령함에 따라, 국내 기업이 진출한 해외 현장에서도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에 전면적인 휴업 조치를 내리지 않았으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은 정부에서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전면적인 휴업 조치를 내린 상황임.
- 일시적 업무정지는 아니지만, 일부 국가는 이동 제한 등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현지 인력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장을 축소 운영할 수밖에 없음.

■ 중동·동남아의 특정 국가에서 국가 혹은 지역 단위로 일시적 업무정지가 내려져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며, 이로 인한 준공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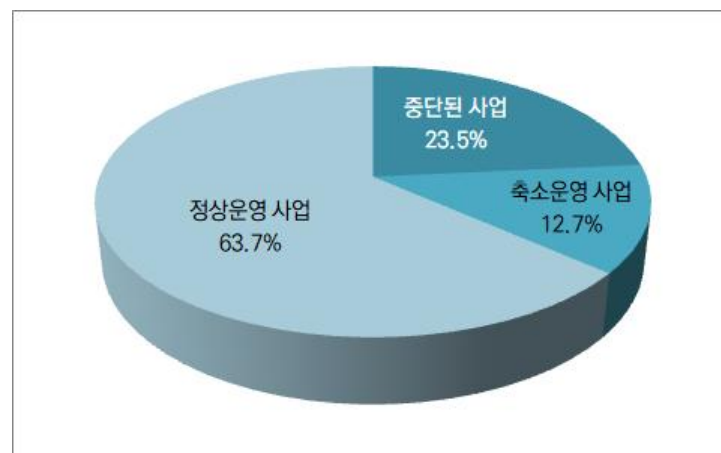
- E사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정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사우디 등 일부 국가의 야간 통행금지(오후 6시 이후) 및 현장 작업 인원 최소화 요청으로 정상 출력 인원의 약 50%만으로 사업을 진행 중임.
- F사는 필리핀 정부의 루손섬 봉쇄 조치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며, 사업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준공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 A사가 중국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중국 정부의 작업중지 명령으로 현장이 중지되었다가 해제된 상황이나, 현지 인력수급 문제로 인해 현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현지 국가의 지역봉쇄 조치로 현장이 폐쇄되거나 축소 운영 중인 기업이 각각 21%로 나타나, 현지 정부의 명령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이 힘든 기업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됨(〈그림 17〉 참조).

■ 사업단위 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기업이 운영 중인 사업 102개 중 약 36.3%의 사업이 현지 정부의 지시로 중단 및 축소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됨.

- 10개 기업이 응답한 총 해외 현장 102개 중 정부의 지시로 중단된 사업이 24개(23.5%), 축소 운영 중인 사업이 13개(12.7%)로 조사됨(〈그림 18〉 참조).
- 나머지 65개 사업의 경우도 조사 시점까지 별도 정부의 지시는 없지만, 자재 및 인력 수급의 문제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운영은 힘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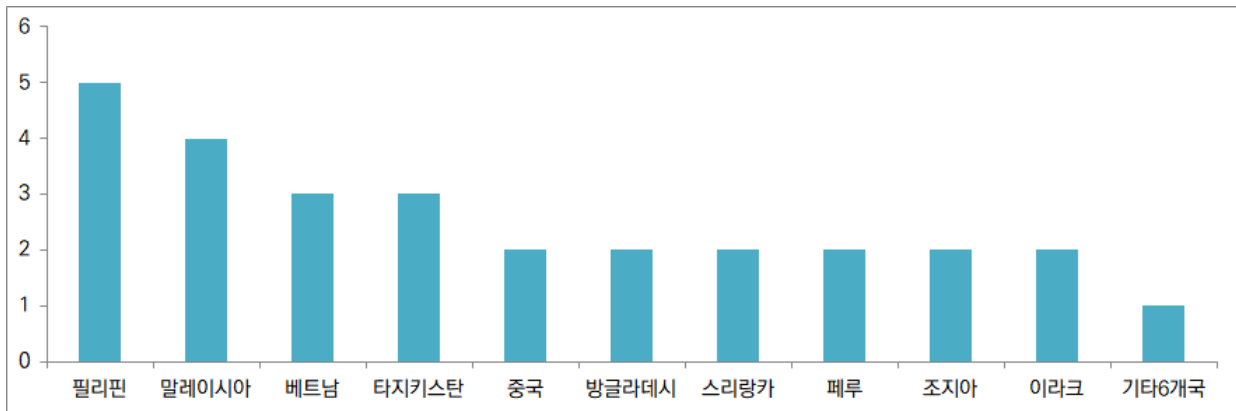
〈그림 18〉 발주국 정부 명령으로 공사중단 또는 축소 운영 중인 사업



■ 총 16개 국가에서, 조사에 응한 10개 국내 건설사의 진출 사업이 중단 및 축소 운영 중임. 이 중 필리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5개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5개 사업이 중단 및 축소 운영 중인 필리핀 다음으로 말레이시아 4개, 베트남 및 타지키스탄 3개, 방글라데시·스리랑카·페루·조지아·중국·이라크에서 2개 사업이 현지 정부의 지시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 운영 중임.

〈그림 19〉 국가별 공사중단 또는 축소 운영 중인 사업 수



주 : 기타 6개국(각 1개 사업)은 요르단, 우크라이나, 미얀마, 싱가포르, 인도, 케냐임.

■ 조사 대상 기업들은 현지 정부의 사업중단 및 축소 운영 지시의 연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기 연장 등과 같은 계약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응답함.

- 중국과 인도의 경우 현지 정부의 추가 봉쇄조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으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경우 예측이 불가하다고 응답함.
- 나머지 국가의 경우 응답자 모두 추가 봉쇄조치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며, 이와 관련한 사업의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큼.

(3) 자재·장비·인력 수급 문제

■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해외건설시장의 현지 국가 검역 등이 강화됨에 따라 제3국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자재, 장비 등을 수입해야 하는 경우 원활한 수급이 어려워 현장 운영에 문제가 발생함.

- 국내에서도 중국산 자재 수입이 원활하지 않아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이 영향을 받았듯이, 해외 건설사업도 중국산 철근 등의 자재 및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는 현지 조달이 힘든 자재 및 장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플랜트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수급 대체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공급가격이 올라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자재·장비·인력 수급 문제는 심각하지 않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사업 조달 체계의 정상적 작동은 불가능하다고 예상함.

- G사는 자재 및 장비 수급이 이전보다 어려운 상황이며, 현지의 외국인력 입국 제한 및 이동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인력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H사는 외산 자재 및 장비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자재 생산공장 가동 중단으로 자재수급 시기의 지연을 예상하고 있음.
- A사는 중국 정부의 지시로 작업중지가 해제된 후 2~3주가 지났지만, 현지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현장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 난항을 겪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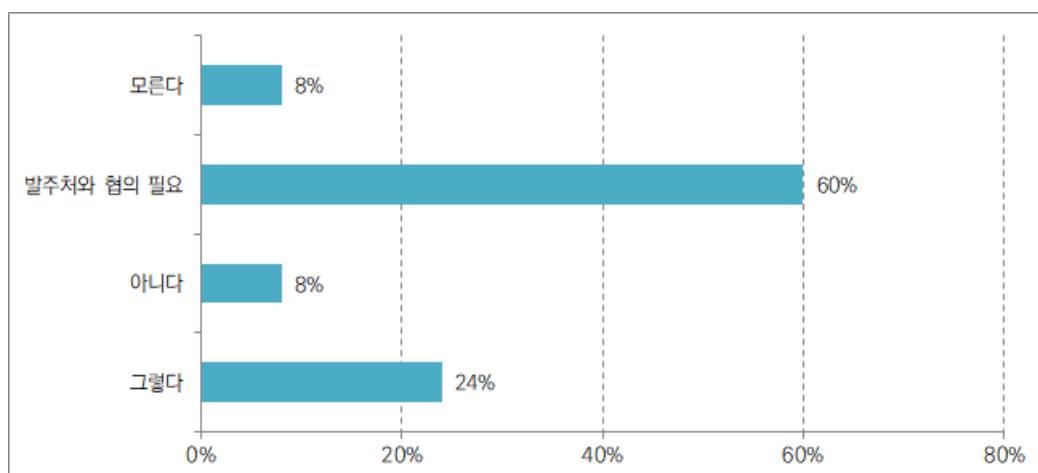
■ 설문 결과(〈그림 17〉 참조)에서도 응답 기업의 13%, 15%가 각각 해외사업 수행상의 애로사항으로 자재 및 장비 수급 난이도와 현지 인력수급 난이도 증가를 꼽고 있듯이 다양한 측면에서 해외 건설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음.

(4)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변경 등 발주처와의 협의 문제

■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계약 조건상에 불가항력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한 사례는 24%에 불과하며, 조항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발주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0%로 조사됨(〈그림 20〉 참조).

- 그러나 인터뷰 결과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불가항력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발주처와의 협의에 따라 공기 연장 여부 등 계약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발주처와 협의 필요' 응답이 높게(60%)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0〉 수행 중인 사업의 계약조건상 전염병 불가항력 조항 포함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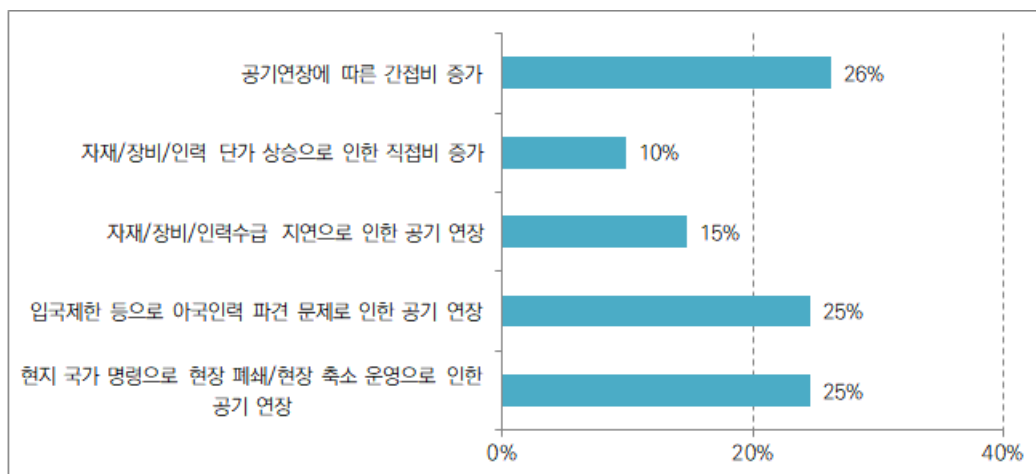


- 발주국 정부 또는 발주처 지시로 공사를 일시 중지하거나 현장을 축소 운영한 경우 공기 지연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하지만 공기 연장이 인정되더라도 이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 계약변경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공기 연장이 인정되더라도 그에 따른 간접비 증가의 계약 반영, 공사중단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조달 여건 악화로 인한 지체 인정 범위를 규정하는 데 있어 발주처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중국에서 사업을 수행 중인 A사의 인터뷰 결과 정부에서 작업을 중지한 기간은 공기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작업중지 해제 이후의 원활하지 않은 인력 수급으로 인해 지체된 공사 기간의 경우 발주자와의 협의에 있어 갈등 발생을 우려하고 있음.

- 향후 공기 및 사업비와 관련하여 발주처와의 계약변경 협의시 예상 문제로는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증가가 26%로 가장 높았으며, 현지 국가의 현장 폐쇄·축소 운영 및 입국 제한으로 인한 공기 연장이 각각 25%로 조사됨(<그림 21> 참조).

〈그림 21〉 해외 발주처와의 계약변경 협의시 예상되는 문제점



주 : 본 항목은 복수 응답 조사 결과임.

- 또한, 발주국 또는 발주처의 코로나19 관련 공기 연장 및 사업비 정산 지침 여부에 대해서는 ‘없다’와 ‘모른다’가 각각 60%와 40%로 조사됨.

- 관련된 구체적 지침의 부재는 잠재적인 갈등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전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함.
- E사는 공기 연장에 대해 하도급사들이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원도급사에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발주처에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함.

■ 요약하면, 방역에 대한 대응 조치를 제외하면 발주 국가나 현지 발주처에서 개별 건설 공사에 대해 별도의 관리·대응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공사 중지 및 축소 운영, 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공기 연장 및 계약변경 등에 대해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모든 대응을 기업의 책임으로만 규정하는 시각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음. 따라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모색도 동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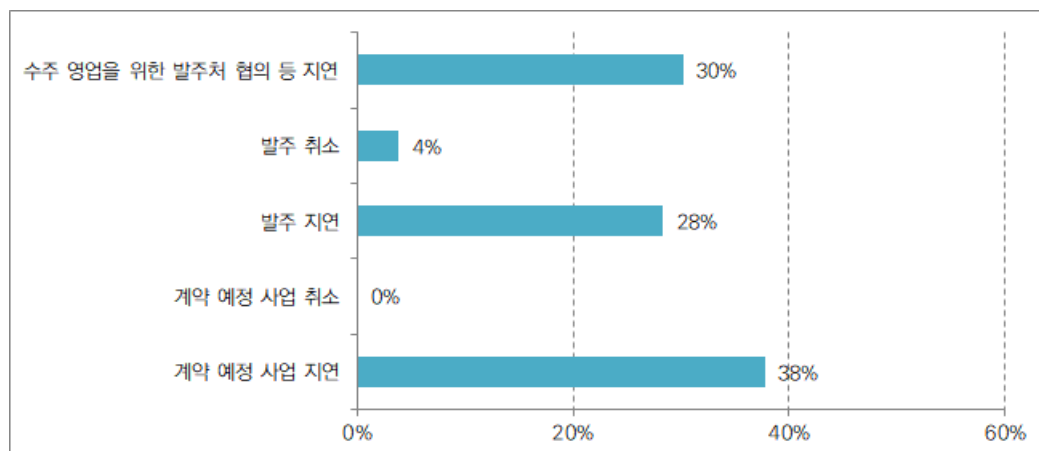
3. 수주 영업 및 신규사업 계약 관련 사항

(1) 입국 제한 등으로 인한 현지 수주 영업활동 문제

■ 코로나19 확산으로 진행 중인 사업의 타격뿐만 아니라 신규사업 수주를 위한 발주처 협의 등 영업활동에도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그림 22〉 참조).

- 앞서 〈그림 1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설문조사 응답 기업의 84%가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해외사업 수주에 심각 이상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응답하였음.
- 설문조사 응답 기업의 30%는 수주 영업을 위한 발주처 협의 등의 지연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2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계약 예정사업 및 수주 영업·입찰 영향



■ 우리나라 인력의 입국 금지 및 제한으로 인해 입찰 참여 및 발주처 협의 등 신규사업 수주·영업에 차질이 예상되며, 이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국토교통부와 외교부가 우리 건설기업 및 기업인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하여 주요 발주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제한조치 완화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우리 건설기업이 참여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의 경우 수출입은행에서 발주처에 입찰 추진 일정의 조정 등을 요청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발주 예정사업의 발주 지연 및 취소

■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주 예정인 공사의 입찰을 지연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 차원에서도 해외건설 수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싱가포르, 인도, 쿠웨이트 등 일부 국가에서 우리 건설기업이 입찰 예정인 사업의 입찰 연기·지연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 설문조사 응답 기업 중 계약 예정사업의 지연을 경험한 비중이 38%, 발주 지연은 28%로 조사되었으나, 현재까지 계약 예정사업이 취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 참조).

-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유가 침체 현상이 지속되는 여건을 감안할 때 추후 계약 예정 및 발주 예정사업의 추가적인 지연 및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인터뷰 대상 기업 중에서도 많은 기업이 발주 예정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발주 계획 자체가 취소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 E사는 입찰 예정인 사업의 지연 또는 취소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수주 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음.
- B사의 경우 인터뷰가 이뤄진 시점에 입찰 예정인 사업의 입찰이 지연된 사례는 없으나, 아시아 시장의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추세로 볼 때 입찰 연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로 인해 기업 차원의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음.
- 설계·엔지니어링 기업인 C사의 경우 입찰 예정인 모든 발주 예정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현재 수주 활동은 거의 멈춰진 실정이며, 설계의 특성상 시공 사업에 비해 진행 중인 사업에 있어서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으나, 신규사업 수주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받고 있음.

III 해외 국가와 기업의 대응 사례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해외건설에 미치는 다양한 형태의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산업 주체별 대응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이를 위해 해외 국가와 기업의 대응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였음.
-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 해외 국가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설산업 관련 대응 방안을 분석해, 국내 기업이 발주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 직면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세계적 기업의 대응 사례 조사를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한 국내 건설기업이 전염병의 대유행에 따른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대비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1. 해외 국가의 코로나19 대응 사례

(1) 미국

- 미국은 2020년 1월 29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후 급속한 확산으로 전산업이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음. 4월 22일 기준 미국의 누적 확진자 및 사망자는 각각 78만 3,290명, 4만 1,816명임.⁵⁾
- 미국은 주별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필수 사업(essential business)으로 인정되지 못한 사업(nonessential business)을 봉쇄하고 있음.
 - Constructconnect사에 따르면 미국의 50개 주(state) 중 모든 사업을 정상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주는 7개에 불과하며, 대부분 주에서 주 혹은 지역 단위로 필수사업을 선별하고 제외된 사업의 운영을 제한하고 있음.
- 주 혹은 지역 단위로 봉쇄 조치가 내려진 43개 주 중 건설사업이 필수사업에 포함되지 못한 주는 4월 1일 기준으로 4개 주(미시간주, 뉴욕주, 펜실베이니아주, 워싱턴주)임.

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국외 발생 현황(4.21.9시 기준).

- 건설사업이 주별로 선정한 필수사업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예외사업(공공 인프라, 주택, 병원사업)을 제외한 건설현장은 봉쇄됨.

〈표 5〉 미국 50개 주별 건설업 봉쇄 조치 현황

구분			주 이름
정상 운영(주 전체)			(7개 주) 아칸소,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 네브래스카, 아이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일부 사업 봉쇄	주 전체	건설업 필수사업 포함 (운영)	(19개 주)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인디애나,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오키와, 오리곤,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메사추세츠
		건설업 필수사업 제외 (봉쇄)	(4개 주) 미시간, 뉴욕, 펜실베이니아, 워싱턴
	일부 지역	건설업 필수사업 포함 (운영)	(20개 주) 앨라배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콜라라도,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캔자스, 메인,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노스캐롤라이나, 뉴햄프셔, 오클라호마, 유타, 테네시, 텍사스, 버몬트
		건설업 필수사업 제외 (봉쇄)	없음.

자료 : Constructconnect(2020.4.2), 코로나19 Construction Activity Report.

■ 공공 인프라사업의 경우 필수사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업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종합건설협회(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에서 3월 18일 발표한 31개 주 교통국의 코로나19와 관련한 공공공사 대응 현황⁶⁾은 다음과 같음.

- 펜실베이니아는 연방 재원이 투입된 건설사업을 중지하고 예정된 사업의 입찰을 취소하였으며, 사우스다코타는 교통국을 폐쇄하여 일부 핵심 사업을 제외한 모든 공사를 중단함.
- 반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29개 주는 시공 중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발주가 계획된 신규 사업들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조사됨.
- 플로리다, 텍사스, 버지니아의 경우 자택 격리로 교통량이 감소함에 따라 차선 폐쇄 규제를 완화하고 작업시간 연장을 허용하는 등 공기 단축 도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됨.

■ Constructconnect사에서 집계한 미국 내 발주가 지연된 건설사업은 4월 1일까지 무려 2,110개로 집계되어,⁷⁾ 미국 건설업계는 시공 중인 사업의 중단 및 축소 운영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신규사업 수주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6) 미국 종합건설협회에서 조사한 주 교통국의 대응 현황은 3월 18일 발표한 것으로, 이후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상적인 시공 및 발주가 어려워진 사업은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됨.

7) Constructconnect(2020.4.2), USA-Delayed Project Reports.

〈표 6〉 미국 주 교통국의 코로나19 관련 공공공사 대응 현황

구분	주(State)	개별 교통국의 대응 현황
공공 건설사업 축소 (2개 주)	펜실베이니아	· 연방 재원이 투입된 건설사업 중지, 입찰 예정사업 2건 취소
	사우스다코타	· 필수 상주 인력 제외 교통국 폐쇄, 핵심사업을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 일시 중단
건설 중 현장 정상 추진 및 신규사업 입찰 진행 (29개 주)	캘리포니아	· 공공업무 근로자는 자택대피명령(Shelter in Place Order) 예외 적용
	플로리다	· 야간공사의 차선폐쇄 규제 완화, 작업시간 연장 허용 검토
	아이다호	· 정상 진행 중이나 교통국 폐쇄로 공사중단 발생 가능성 존재
	노스캐롤라이나	· 시공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연기 요청시 연장 허용
	네브래스카	· 주지사가 개별 주정부 기관에 코로나19 대응 운영 재량권 부여
	텍사스	· 교통량 감소로 건설현장 작업시간 연장 및 공사 영역 확대 허용
	버지니아	· 교통량 감소로 공사 중인 현장의 공기 단축 전망
	워싱턴	· 공사 중인 현장의 공기 연장 허용, 금전적 보상 미적용
	아칸소, 애리조나, 콜로라도, 아이오와, 인디애나,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인, 미네소타, 미주리, 몬태나, 노스다코타, 뉴햄프셔, 뉴멕시코, 네바다, 뉴욕, 오크하임, 오레곤,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와이오밍	

주 : 아칸소 등 21개 주는 시공 중인 사업 및 신규사업 입찰을 당초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임.

자료 : 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2020.3.18), AGC Survey of State DOT Response to COVID-19.

(2) 영국

■ 영국은 202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할 때 세계에서 8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나라로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이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음.

- 4월 1일 기준으로 영국의 누적 확진자 및 사망자는 각각 2만 9,474명, 2,352명으로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중국, 독일, 프랑스, 이란에 이어 전 세계에서 8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음.

■ 3월 27일에 발표한 ‘특정 사업 및 장소 봉쇄에 관한 지침’(Closing certain businesses and venues)⁸⁾에 건설현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현장운영절차’(Site Operating Procedure - Protecting Your Workforce)⁹⁾를 준수해야 하기에 정상적인 현장 운영은 힘든 상황임.

- ‘특정 사업 및 장소 봉쇄에 관한 지침’에는 레스토랑, 미용실, 호텔, 도서관, 클럽, 영화관, 수영장

8) UK Cabinet Office and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2020.3.27), ‘Closing certain businesses and venues.’

9) Construction Leadership Council(2020.3.23), ‘Site Operating Procedures - Protecting Your Workforce.’

등 매우 다양한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함.

- 건설현장은 봉쇄 대상 사업장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Construction Leadership Council(이하 CLC)에서 3월 23일 마련한 '현장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봉쇄될 수 있음.

■ CLC의 '현장운영절차'는 영국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의 코로나19 관련 지침들을 기반으로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영국의 모든 건설 현장에 적용됨.

- 3월 30일 영국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가 건설산업에 보낸 공문¹⁰⁾에서도 건설사업은 CLC의 현장운영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하라고 명시하고 있음.
- 현장운영절차의 주요 내용은 ① 일반사항(Introduction), ② 자가격리(Self-isolation), ③ 의심환자 발생시 조치(Procedure if Someone Falls Ill), ④ 출퇴근(Travel to Site), ⑤ 출입구 관리(Site Access Point), ⑥ 손 씻기(Hand Washing), ⑦ 화장실 사용(Toilet Facilities), ⑧ 구내식당 및 식사(Canteens and Eating Arrangements), ⑨ 탈의실, 샤워실, 건조실(Changing Facilities, Showers and Drying Rooms), ⑩ 인접 작업의 자제(Avoiding Close Working), ⑪ 청소(Cleaning)로 구분됨.

■ 영국의 건설현장은 '현장 폐쇄'라는 최악의 경우는 모면하였으나, 현장운영절차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불가피하기에 정상적인 운영은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됨.

(3) 싱가포르

■ 싱가포르 정부는 4월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영업장에서의 비필수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음. 필수 서비스(essential services) 및 관련 조달 체계를 제공하는 기업만 해당 명령에서 예외 조치를 받음.

■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Building Control Act에서 규정된 모든 건설 작업도 4월 7일부터 5월 4일까지 일시중지 명령이 내려짐.

- 이에 따라 디벨로퍼, 건설기업, 기술 인력, 현장 감독자, 건설자재 공급자 등 모든 산업 참여자들은 작업중지 명령을 준수해야 함. 명령 위반시 감염병법에 따라 1만 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10) Letter from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UK's construction sector(2020.3.31).

- 관련 명령이 발효되기 전에 사업의 필요 작업(necessary works)은 완료되어야 하나 만약 작업 완료가 어려운 경우 행정 부처에 사유와 필요한 추가 기간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 다음의 작업들은 관련 명령이 발효되더라도 감독 아래 시행될 수 있는 필수 작업(essential works)임.

- 프로젝트 현장의 보안 및 유지관리 관련 업무
- 임시 구조물을 포함하는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유자격자의 점검
- 건축물 및 인접 구조물의 계측 및 모니터링
- 터널 작업 관련 기기의 유지관리 업무
- 충전용 웰(프리카스트 콘크리트 링 라인 구조물)의 유지 및 작동
- 우천시 펌프를 위한 장비의 작동
- 타워크레인 등 중장비 안전을 위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업무
- 자재 및 프리캐스트 구성품의 입고

2. 글로벌 건설기업의 대응 동향

■ 코로나19 확산은 ‘다수의 인력이 단기간 집중되는 건설현장’이라는 생산방식을 가진 건설기업에는 직접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세계적인 기업들도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음.

■ 세계 최대의 건설 및 전력 중장비 제조기업인 캐터필러(Caterpillar)사는 3월 26일 미국을 포함해 세계 다른 지역에서 사업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며, 생산시설 운영 등을 포함하는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함.¹¹⁾

- Caterpillar사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재무상태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면서 2020년에 대한 재무 전망을 취소한다고 밝힘. 또한, 수요 감소, 잠재적 공급 제약, 확산에 따른 관련 정부 조치의 확대 등으로 일부 시설에서의 생산을 중지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시설 중지의 가능성도 큰 상황이라고 밝힘.
- 이에 대체 공급원의 활용, 다른 유통 센터로의 주문 변경, 중요 부품의 재분배 우선 등 사업의 연속

11) Caterpillar(2020) “Caterpillar Responding to COVID-19”

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 중임. 이러한 계획의 지속 실행을 위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공급망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예정임.

■ 스칸스카(Skanska)사와 터너(Turner)사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음. 진출한 국가의 현장에 조정 대응팀을 구축해 현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 공유 및 프로토콜 구현 등 현장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함.¹²⁾

- 스칸스카(Skanska)사는 20년 동안 구축해 운영해 오던 안전보건환경관리 시스템(Safety Health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예를 들면, 인력 간 접촉 빈도가 높은 구역, 교통량이 많은 구역, 공구와 차량에 대해 외부 기관을 통한 전문 방역을 하고 있음.
- 터너(Turner)사의 코로나19 대응팀은 전 세계 공급망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일정을 준수하기 위한 기업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지연 여부를 감시하고 있음.

■ 북미 전역에서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PCL사는 사업별 현장의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대응 방안을 조정하는 ‘팬데믹 대응 위원회’(Pandemic Response Committee)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¹³⁾

- 현장별 안전 조치와 기준을 지속해서 평가하여 보완해 나감과 동시에 진행 중인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업 기술을 보유한 직원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현장 접근 프로세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작업 간 및 작업자 간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음.

■ 엔지니어링 기업인 스탠텍(Stantec) 역시 ‘팬데믹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위원회는 운영 및 안전 분야의 전문가와 공중 보건 의과까지 포함된 전문가 그룹임.¹⁴⁾

- 위원회는 직원의 건강 보호, 사업의 연속성 제공, 고객을 위한 서비스 운영 중단 최소화를 위한 스탠텍의 상설 팬데믹 대응 계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스탠텍의 상설 팬데믹 대응 계획은 비즈니스 연속성 및 원격작업 자원 제공, 사전 예방적 검역 시행, 사무공간 안전 및 위생 프로토콜 수립 및 시행, 안전 의료 및 테스트 지침 등이 포함됨.

■ 플랜트 기업인 싸이페(Saipem)와 테크니프MFC(TecnipFMC)도 코로나19 대응 테스트 포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음.¹⁵⁾

12) Skanska(2020), “Skanska Response to COVID-19”; Turnerconstruction(2020), “Turner Responds to COVID-19”.

13) PCL(2020), “Coronavirus(COVID-19) Update”.

14) Stantec(2020), “COVID-19: Ideas and Expertise”.

15) Offshoreenergy.com(2020), “Saipem responds to COVID-19”; TechnipFMC(2020), “Press Release”.

- 테크네피FMC는 비필수 공급업체와 계약자의 현장 접근을 제한하고 외부 방문자 선별을 위한 프로토콜을 구축하여 운영 중임. 또한, 수주 프로젝트의 계약 지연 대비와 자본투자 축소 등과 같은 경영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싸이팜은 약 2,200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마트 워킹’을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장의 운영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음.

3. 시사점

- 미국, 싱가포르,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 확산 대응의 조치로 건설현장의 일시적 폐쇄 및 사업 중지 등의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음. 필수 작업에 대한 매우 제한적인 예외 조치 또는 현장 운영 절차의 준수 등을 요구하고 있어 정상적인 건설사업 현장의 운영은 어려운 상황임.
- 우리 건설기업이 진출한 해외 건설시장에서도 상술한 바와 같은 유사한 행정 조치가 내려지고 있음. 때문에, 해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각 발주국의 조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정부에서도 발주 국가별로 시행되고 있는 건설사업과 관련한 행정 조치의 내용을 파악해 건설기업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완화 또는 해결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글로벌 건설기업들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업의 중단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대응 조직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사업 현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방역 체계 및 인력 관리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해외 사업을 수행하는 우리나라 건설기업도 전염병 대유행이라는,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외부 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 조직과 절차 마련이 중요함.
 - 더불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전염병의 대유행에 따른 영향도 향후 해외 건설사업의 리스크 관리 체계의 완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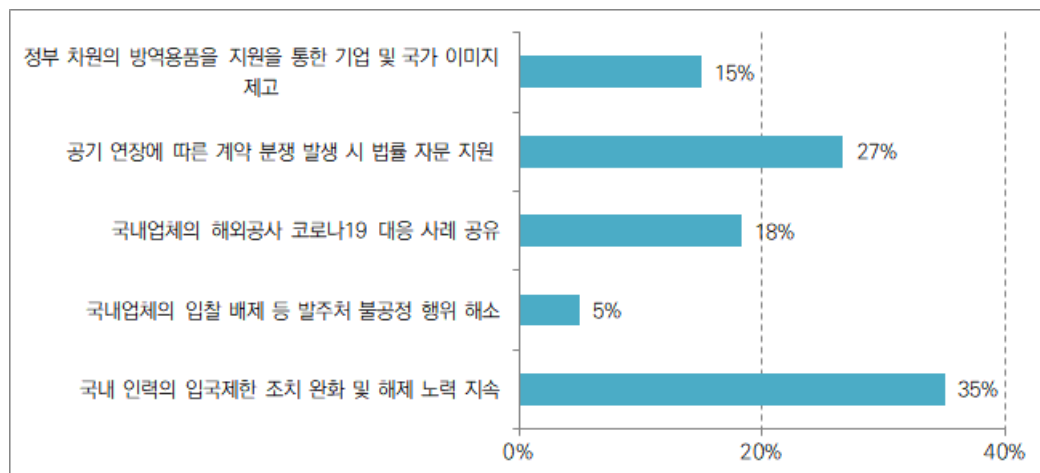
IV 해외건설산업의 주체별 대응 과제

1. 정부의 대응 과제

설문조사 대상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건설사업 수행상의 애로사항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아래의 <그림 23>과 같이 평가하였음.

- 국내 인력의 입국제한 조치 완화를 위한 노력,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 분쟁 발생시 법률 자문 지원, 의료장비 지원 등을 통한 기업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이 주요 지원 방안으로 평가됨.

<그림 23> 해외공사 수행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 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대응 과제를 (1) 팬데믹 대응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행, (2) 입국제한 조치 완화 등을 위한 외교적 대응 강화, (3) 법률 자문 지원 구분, (4) 코로나19 종식 이후 시장 진출 전략 수립 및 시행으로 제시하고자 함.

(1) 팬데믹 대응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행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현재의 위기 상황은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것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한 개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필요한 상황임.

- 인터뷰 결과 국내 건설기업이 진출한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체계의 미비로 확진자 발견 시에 국내 기업이 준수해야 할 절차 등이 없음.

- 해외건설시장에서 근무하는 국내 인력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할 시 해당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의료 지원을 포함한 가이드라인(팬데믹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

- 인터뷰 결과, 국내 기업이 진출한 아시아 및 중동 등 지역의 일부 국가에서는 낮은 의료체계 수준으로 인해 확진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불가능한 실정이라서 국내 인력에 대한 별도의 의료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국내 기업이 준수 및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해당 국가의 한국대사관과 진출 기업 및 현지 한인 사회가 참여해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이드라인은 확진자 발생시 초기 대응에 관련된 보고 등의 지침을 포함해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절차가 포함되어야 할 것임.

(2) 입국 제한 등의 조치 완화를 위한 외교적 대응 강화

- 다수의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 제한 또는 출입국 봉쇄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이로 인해 건설현장의 단기간 폐쇄 또는 현장 작업 인력 축소 등의 행정명령이 추가로 시행되고 있어 기업의 사업 수행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필수 인력의 입국 제한은 기업의 현장 운영을 비롯해 추가적인 사업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때문에, 필수 영업 및 기술 인력에 대한 제한적 입국 허용을 위한 외교적 대응이 요구됨.

- 최근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건설 인력 107명이 예외적 입국 허가를 받아 쿠웨이트에 입국한 사례가 있음. 입국 금지 및 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정상적인 현장 운영이 어려웠지만,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가 쿠웨이트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예외적 입국 허가가 시행됨.¹⁶⁾

- 현재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기 지연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인 입국 조치가 필요한 수요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목적의 필수 인력에 대한 입국 허용을 위한 상대국 정부와의 협의 채널 구축이 필요함.

(3) 클레임 관련 법률 자문 지원

- 입출국 제한 및 현지에서의 이동 제한 등은 정상적인 건설현장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며, 이는 곧 ‘공기 연장’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기업들은 예상함.

16) 건설경제. 2020년 4월 13일

- 현장 운영 중지에 따라 사업의 공기 연장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건설기업은 EOT(Extension of Time) Letter를 발주처에 송부하는 등 향후 공기 지연에 따른 클레임 상황에 대비하고 있음.
- 현재는 공기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발주처와 건설기업 모두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계약상의 분쟁은 발생하지 않고 있음.

■ **현장 폐쇄 조치 등이 끝나고 현장이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 연장이 인정되지 않아 사업의 준공 기한을 맞출 수 없는 경우, 공기 지연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는 기업의 몫임. 더욱이 공기 지연에 따른 발주처 조치에 대하여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계약 분쟁으로 이어지게 됨.**

- FIDIC의 공사계약 조건에 따르면 계약자가 대처하기 불가능한 불가항력 사건에 따른 공기 연장은 가능하지만, 추가비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전쟁, 테러리즘 등과 분쟁과 지진, 화산 폭발 등의 자연재해에 국한됨.
- 해외사업 법률 및 계약관리 조직을 보유한 일부의 대형 기업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중견 및 중소 기업은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시적인 조직을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

(4) 해외사업 수행 기업의 코로나19 대응 사례 공유

■ **현재(4월 22일 기준)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232개에 이르며, 시공 사업 건수도 1,787건임. 즉, 본 연구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수의 기업이 해외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임.**

- 때문에, 정부의 지원 방안은 해외 시장에 진출한 모든 기업에게 제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안이어야 함.

■ **해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면 동일 국가 또는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임.**

- 해외 사업은 시장과 공종에 따라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기업마다 추진하고 있는 대응 전략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개별 기업이 수립 및 시행해야 하는 대응 체계의 완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5) 코로나19 종식 이후 시장 진출 전략

-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많은 국가에서 의료체계 개선, 즉 추가적인 의료시설 건설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 시스템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임. 이에 의료시설 건설과 운영을 포함하는 사업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 이를 해외건설시장 진출 확대 전략의 하나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저개발 국가 등 신시장 진출을 위한 의료시설 건설 및 운영 사업의 상품화 전략이 요구됨.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우리나라와의 경제 교류를 위한 정책기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의 전략적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EDCF의 우선 추진사업 중 기후변화, 식량 위기 등의 세계 이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우선지원 분야 사업이나 중점지원국가 추진사업 등을 통해 의료시설 건설사업을 전략적으로 상품화할 경우 국내 기업의 수주 가능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건설기업의 사업 수주를 위한 마중물로서의 건설외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체계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보건체계 취약 국가의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의 진단 키트 및 마스크 등의 장비와 더불어 전염병 방역 체계 등에 대한 자문 등을 제공한다면 진출 기업의 이미지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음. 특히,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무상원조와 연계해 지원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다수의 국내 기업이 진출한 국가의 경우에도 국내 인력을 위한 진단 및 치료 체계 마련과 동시에 해당 국가에 진단 키트 및 마스크 등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협의할 필요가 있음.

2. 기업의 대응 과제

(1) 팬데믹 대응 조직의 구축과 시행

-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그에 따른 국가 봉쇄(lockdown) 등은 민간 기업이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임. 하지만 해외 건설사업 수행에 필요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즉각적인 기업의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상술한 바와 같이 세계적인 기업들은 코로나 또는 팬데믹 대응 위원회 등과 같은 임시 조직을 구축

하여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 및 시행하고 있음.

- 정부 조치에 따른 건설현장의 일시적 중지 등으로 인한 공기 연장 이슈, 물류 시스템의 일시적 중지 등에 따른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 문제, 입국 제한에 따른 인력수급 문제 등 사업의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축이 요구됨.
- 또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국내외 인력의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 체계 수립 등을 포함하는 안전보건 체계의 강화와 인력 배치 계획의 조정과 같은 현장관리 고도화가 필요함.

(2) 해외건설 리스크관리 체계의 고도화

■ 해외건설은 특성상 진출 국가의 경제 및 정치 등 내부적 요인과 더불어 국제유가의 변동성 등과 같은 세계 영향 요인에서도 자유롭지 않음. 때문에,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수립 및 운영하는 것은 필수적임.

- 전염병 대유행에 따른 국가 폐쇄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의 운영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 사업의 연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기업은 점검하고 대응해야 할 리스크 요인을 확대함과 동시에 현장 중단 또는 운영 축소 등에 대비한 체계(contingency plan)를 수립해야 함.
- 이번 코로나19 확대로 시장이 받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기업의 리스크관리 체계가 급변하는 현장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3)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한 기업의 회복탄력성 확보

■ MEED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올해 2분기에 계획된 910억 달러 규모의 사업 발주가 지연될 가능성이 큼. 특히, 620억 달러 규모의 사업 발주가 예정된 GCC 건설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각각 210억 달러와 200억 달러 규모의 사업 발주를 계획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큼.
- 하지만 세계 경제의 회복 시나리오에 따른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연 및 중지된 사업의 발주는 필수적임. 따라서, 해외건설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의 빠른 회복탄력성 확보가 필요함.

■ 코로나19 종식 이후 경기 부양 차원에서의 건설투자 확대와 지연된 사업의 정상화 등 해외건설시장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진출 기업은 시장별 모니터링과 사업 수행을

위한 조달 체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진출 국가 또는 지역의 거점 조직을 활용해 시장의 발주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수주 영업 전략을 마련해야 함.
- 사업 정상화에 따른 현지 대응력 확보를 위해 인력과 자재 및 장비 등 조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등의 선제적 준비가 필요함.

손태홍(연구위원·thsohn@cerik.re.kr)

최수영(연구위원·sooyoung.choe@cerik.re.kr)

박희대(부연구위원·hpark@cerik.re.kr)

성유경(부연구위원·sungyk@cerik.re.kr)